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18회, 베엘 제불 논쟁, 루가복음 11:14-36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베엘제불 논쟁입니다. 루가복음 11:14-36.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 e-lecture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강의 시리즈를 따라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거나 실행하셨지만, 누가복음의 버전은 마태복음의 버전과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셨듯이, 예수께서는 친구가 매우 특이한 시간에 방문하지만 끈기 있게 도와주셔서 찾아와서 도울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전환점으로 사용하여 제자들이 계속 구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면 그들의 관심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루가는 예수가 엑소시즘에 연루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또 다른 논의를 시작하는데, 그 자체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반응을 촉발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베엘제불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11장 14절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권능의 만남에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회의론자들과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악령, 즉 사탄의 사역으로 돌릴지 살펴보십시오.

또한, 17절에서 26절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수께서 두 왕국 개념과 강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보여 주심으로써 어떻게 대답하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신 후에, 표적을 찾는 세대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거의 꾸지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14절부터 성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ESV에서 읽어봅니다. 지금 그는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병어리가 말을 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 베엘제불의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와 싸우는 모든 왕국은 곧 황폐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집안은 무너집니다. 사탄도 자기와 싸우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당신들은 내가 베엘제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 그의 소유물은 안전하느니라.

그러나 그보다 강한 자가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그는 그가 신뢰하던 갑옷을 벗기고 그의 추락을 나눕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흠는 자입니다.

24절에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것은 물 없는 곳을 지나 안식처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내가 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썪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서, 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27절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베엘제불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군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는 루가 복음서에서 이미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회당에서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루가 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에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영적 활동을 다루는 데 관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관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군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뒤를 이을 토론의 배경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을 사로잡거나 점유하고 있는 질병으로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그 특정한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다루십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육체적 질병을 영적인 원인과 연관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가 아플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아프거나 무언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신에게 반하는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가 전개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의 일을 사악한 영적 존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야훼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훼가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놀라움과 군중의 반응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우리는 군중이 일어나고 있는 말 못함의 영적 연결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이 기록에는 엑소시즘의 성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놀란 것은 이것이 효과를 발휘한 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약간의 회의주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이교도 전통의 특정 이름 하나를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영적 우두머리, 사탄이라면 베엘제불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이교 전통인 바알에서 알고 있는 신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신들 중 일부는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영의 힘으로 깨어났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누가 설명하듯이 이는 사탄의 깨어남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즉, 예수의 사역은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강력한 사악한 영적 행위자에게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일에 마법과 사탄의 활동을 투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였고 기적을 행하는 그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비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복음 전도자들의 글에서처럼,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엑소시즘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감히 죄를 지은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에서 이 무리가 하는 일입니다.

누가는 그 이야기를 담론에 끌어들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끌 것입니다. 이 특정 설명에 내포된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자녀, 그들 자신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힘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엑소시즘은 알려졌지만, 예수의 사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치유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힘의 근원이다. 예수는 두 왕국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용납하고 싶지 않은 지점까지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자신을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그를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적들은, 제가 이 강의에서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죄, 사탄, 죽음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가 사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궁궐을 지키면 그의 소유물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들이 언급하는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리키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소위 강한 자를 이긴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권능을 어떻게 보고 정의해야 하는지 열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두 경쟁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 악마의 왕국, 심연의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하는 권능. 바로 이 구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후에 그는 기적을 행하셨고, 청중들은 그가 실제로 다른 영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미국에서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신이 일하고 누군가가 악마의 권능에 기인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강하고 사회의 모든 구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영은 선의 영을 대신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당신이 원한다면 폭발적입니다. 이제, 예수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탄도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야. 내 말은 그거야. 그저 그게 기쁘지 않을 뿐이야.

그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두 왕국이 걸려 있다고 그는 열거합니다. 이 두 왕국은 명확한 용어를 정의하여 운영됩니다.

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강한 사람의 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더 강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 사탄의 머리를 공격하고 그의 소유물을 잡고 그의 영토에 들어와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속했을 것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에 침입하여 거기에 있는 것을 붙잡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영역에서 이러한 물리적 특징 중 일부를 명확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나사렛 선언문의 이 강의에서 앞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말을 잃었고,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점은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중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모든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 수 없고, 그의 사명은 마귀의 사명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는 4

장의 유혹 장면에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사역에서 끊임없이 사악한 영적 활동을 다루어 왔습니다.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어둠의 왕국과 신의 왕국이라는 두 왕국을 이해하고, 신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언어를 좋아합니다. 신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가 바로 여기에서 신의 권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호소합니다.

그는 베엘제불의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출애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장면의 경우, 하나님의 손가락은 일하는 하나님의 힘을 가리킵니다. 이 참조는 시편 8편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때때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거나 유래된 것.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영의 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여기서 첫 번째를 지칭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뜻이고, 당신은 귀신에게 돌린다면, 당신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이해합니까? 티모시 존슨이 말했듯이, 사탄보다 더 강한 손가락이 그에게 전쟁을 걸고 지상에 그의 주권, 즉 하나님의 왕국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의 적용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 즉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흠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27 절에서 계속되는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 속에 이 모든 일을 듣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낳은 자궁과 당신이 등지를 틀고 있는 젖가슴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

지금은 진실하고 애정 어린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돌아갈 때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하나님의 일을 악마의 일에 돌리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와 그들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이렇게 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일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른 것에 돌립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좋아요, 그들이 표적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적합한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가 요나의 표징을 묘사하는 방식은 29절에서 그들이 듣는 데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읽었습니다.

군중이 늘어나자 그들은 정말로 모였습니다. 그는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의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세대에게 사람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심판 때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 왔고,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파에 회개했고,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등불을 켜고 지하실이나 바구니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받침대 위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 당신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당신의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쁜 때는 네 몸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등불이 그 광선으로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통 밝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시력이 정말 좋다면,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에서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경적 논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이것입니다.

그가 두 왕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더 많은 군중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세대로서 그들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 그들 앞에 있는 바로 그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전파했듯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는 너무 타락해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어느 날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시바의 여왕으로 알고 있는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왕보다 더 현명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현명한 말씀을 하시고, 이 세대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든 여행할 필요가 없으며,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전파했을 때 회개했지만,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의 아들의 행위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찾고 있다면, 그 표적은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지혜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판 때 두 증인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는 남방 여왕이고, 두 명은 니네베의 사람들이다. 이 증인들은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을 데리고 온 두세 명의 증인의 전통에 따라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설 것이다. 빛과 어둠, 대조 또는 이미지 속에서, 예수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일하는 사람의 아들을 볼 수 있다고 그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그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인자가 지혜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너무 딱딱하고, 그들의 생각에서 기간이 너무 왜곡되어서 그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듯하며, 그들 앞에서 표적이 행해질 때 항상 한 가지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요 표적이 방금 행해졌습니다.

병어리 한 사람이 예수께서 운동하시는 동안 치유를 받았습니다. 군중의 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악한 영적 권능의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표식을 명확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청중은 이런 가혹한 메시지를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을 때, 우리는 기적적인 행위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아니요, 요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할 때, 삶이 변화되고,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회개를 받고, 뒤로 돌아가 어둠에 갇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빛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기대 때문에 야훼의 자녀들을 야훼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세대의 함정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고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목소리 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사탄의 일로 돌리고, 그의 반응이 얼마나 정당하고 단호할지에 대한 생각을 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요나의 표징과 같은 표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나의 경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당신과 저는 멀리서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온 남방 여왕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이 시험을 읽으면서 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나 잘못된 행위자의 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그분이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그의 설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주님이자 구세주로서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공기의 통제를 몰아내어 불행의 영, 또는 그 영이 어떤 이름이 되든, 우리 삶을 지배 하거나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평화의 왕자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가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구체화된 경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열정적인지 모르겠고, 열정적이라는 것에 대해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찾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안주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그 추구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베엘제불 논쟁입니다. 루가복음 11:14-36.